세상에 낚이지 않으려면

(마태복음 10:16~23)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17.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 낚이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에 낚이지 않으려면'
답부터 말씀드리면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 대답을 좀 더 풀어보자면 양은 이리들에게 둘러싸여서도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끝까지 양으로 남는 것이야 말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염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환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셨으면서 왜 이토록 걱정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자들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 이리라면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호랑이나 사자일 것입니다. 이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니 이리보다 더 강한 존재일수는 있어도 잡아먹히는 양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갈 제자들을 양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파송된 제자들은 무리지어 있는 양도 아니며 목자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동떨어진 양으로써 이리들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며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예상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로써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이름의 낚시 바늘로 사람을 낚아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자들입니다. 앞서 본 7절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에 예수이름이라는 낚시 바늘로 사람들의 마음을 낚아서 가까이 온 천국으로 들여보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마음을 천국에 보내라는 것은 곧 직장에 다니면서 마음을 천국으로 보내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음을 천국으로 보내고,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에 마음을 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은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이 물고기가 아닌 이리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마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낚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존재입니다. 낚시로 비유하자면 어부와 물고기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낚이는 물고기가 되고 잡아먹히는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염려하셨고 그 해답을 가르쳐주십니다.

17~18절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공회와 총독과 임금과 이방인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대표적인 이리들입니다. 다만 이들이 이리가 될 것인가 물고기가 될 것인가는 제자들에게 달려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부다울 수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가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부답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낚이는 물고기가 되고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어들이시려고 드리우신 낚시 바늘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마음이 낚여서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을 천국으로 보낸 제자들은 예수님께 매달린 작은 낚시 바늘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함으로써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해에서 잡히는 해산물 중에 오징어가 유명합니다. 이 오징어가 몇 년 동안 씨가 말랐다가 요즘 들어 다시 잡히기 시작했답니다. 오징어를 낚시로 잡을 때에 배에서 굵은 밧줄을 내립니다. 그 밧줄 끝에는 낚시 바늘이 매인 낚싯줄이 옥수수수염 같이 수백 개씩 늘어져 있습니다. 오징어가 있는 곳에 밧줄을 내리면 오징어들이 바늘에 낚여서 딸려 올라오게 됩니

다.
이 세상은 바다이고 예수님은 굵은 밧줄이며 제자들은 작은 낚시 바늘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은 굵은 밧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첫 번째 대상으로 관계하게 된 제자들은 밧줄에 달린 작은 낚시 바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굵은 밧줄에 낚시 바늘이 연결 된 것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관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마주할 때에는 가족들에게 보내지는 것이고, 직장에 출근할 때에는 직장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밧줄에 매인 작은 낚시 바늘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까지 오르시며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길을 따를 때에 우리의 몸이 있는 곳은 물고기를 낚는 바다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낚아 천국으로 끌어올리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마음을 낚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이름으로 이 세상을 낚시하여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중입니다. 예수이름의 낚시 바늘에 걸려서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하늘로 가게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 첫 번째 관계가 예수님이기에 나머지 관계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지는 관계가 됩니다. 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이었기 때문에 몸으로 살아계시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굵은 밧줄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부다운 어부가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부가 되어서 우리를 천국에서 낚아서 세상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인 마음은 세상의 먹잇감이 됩니다.
21절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마음을 빼앗아 세상에 머무르게 한다면 자녀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빼앗아 세상에 머무르게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세상에 묶이게 하는 자들은 설령 육체적으로는 가족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에게 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귀엽고 순수한 아기가 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의 마음을 이 땅에 붙들어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파송 받았을 때에 육체적인 핍박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화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세케테(προσέχω)로써 마음을 '분리시켜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다소 모순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정작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하는데 사람을 삼가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분리시켜 지킬 수 없다면 사람들은 물고기가 아닌 이리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마음을 밀착시키면 배우자는 낚을 물고기가 아니라 나를 잡아먹는 이리가 됩니다. 내 마음을 삼키고 천국에 있는 마음까지 끌어내려서 땅에 매이게 할 것이기에 어떤 관계에서도 마음을 삼가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파송을 받았지만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양과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위태롭고 아슬아슬할 정도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쉽고 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양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부 됨을 지킬 수만 있다면 사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어부 됨을 지킬 수 없다면 물고기들은 모두 나를 잡아먹는 이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삼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계로부터 마음을 분리시키고 떨어뜨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16절의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에 담겨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쓸 때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심은 반어법적으로 그 간교함을 유용한 지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뱀의 간교함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유익이 되는 사람과 손해가 되는 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본래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높아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높음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

님처럼 되기 위하여 높음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영부인의 자리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이 영부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인류를 유혹하여 또 다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던 셈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또 다른 하나님이 되게 유혹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마음은 땅에 먹히고 낚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좋다 나쁘다 판단할 때에는 배우자를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즉 마음에서 배우자를 삼가고 분리시키지 못하고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뱀의 지혜가 양의 속성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양은 자신과 관계된 모든 판단을 목자에게 위임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기에 목자가 죽음의 계곡으로 인도할지라도 따라 들어갑니다. 이리나 사자를 만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자녀가 형통하든 못하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뱀이 가진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양으로써 가질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지혜는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뱀의 간교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처럼 판단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교함을 뒤집어서 지혜로 바꾼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판단하지 않으므로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양의 양됨은 목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자나 표범은 물론이고 같은 초식동물인 사슴일지라도 야생동물들은 목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를 인정한다는 증거는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납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에 낚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삼가고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에 예수이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예수이름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어부로써의 사명을 잊고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비둘기의 순결함이란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비둘기의 순결함이 또한 양의 속성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양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을 목자에게 맡깁니다. 순결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케라이오스(ἀκέραιος)는 곧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한 달 동안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자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게 되면 “적자가 계속되니 이제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순결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죽는다는 판단은 이 세상에서 사탄이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니 몇 년 못 살고 죽을 것이라는 염려가 된다면 이 또한 사탄이 준 판단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세상에 풀어놓은 판단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습관적으로 적용하는 삶은 이미 사탄에게 먹혀버린 상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탄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기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판단은 결코 중립적이고 건전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땄을 때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자 그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감격해서 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한국 땅에 있지만 그 마음은 독일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지고 있었기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하게 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서울대에 합격한 자녀에게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접촉하고 머물 곳이 천국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마음을 보낼 때에 몸이 있는 이 땅에도 기쁨과 행복이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리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낚시 바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접촉면을 늘리시기 위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예수이름을 낚시 바늘로 삼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이 천국에 머물지 못하고 땅으로 끌려갈 수 있었기에 염려하셨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된다면 반대로 세상에 낚이게 되고 이리에게 먹히는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건강이라는 상황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돈이 안 벌리는 것은 경제적 차원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못하면 정신적으로 압박과 부담의 핍박을 당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이 주어질 때에 마음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양은 양다워야 됩니다. 양은 본성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목자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판단을 위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움직이는 순결함이 있습니다.

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 판단을 죽여야만 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과제와 문제를 대할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문제들에 대해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양다운 양일 수 있습니다. 또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유지함으로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리로 돌변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물고기로 낚는 삶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물고기가 되어서 세상에 낚이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양의 두 가지 속성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극단적 상황을 만나도 마음을 삼가게 해주시고 가까이 온 천국에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예수이름을 말함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